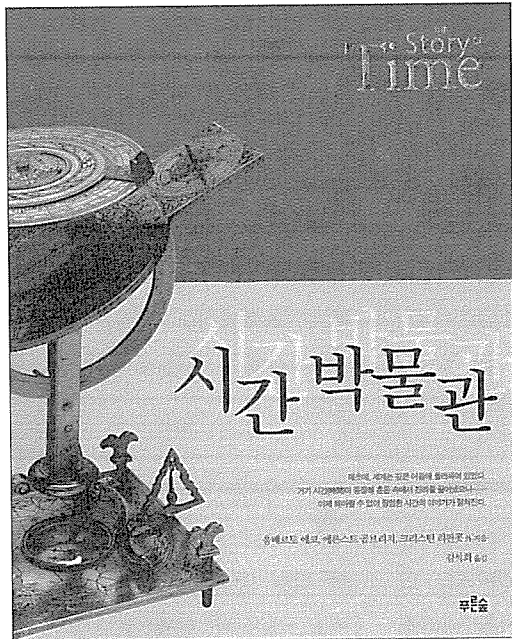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간

인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영국 그리나치 천문대는 새 천년 맞이 행사로 시간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별전인 '시간박물관'을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국립해양박물관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이 책은 전시회에 선보인 세계의 여러 박물관·도서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시간관련 유물 및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은 그 전시회의 도록(圖錄)으로 제작된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예술·역사·철학·문화분야의 석학 24명의 글을 실어 시간과 문명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4백여점의 컬러사진은 읽는 즐거움과 보는 즐거움을 더해 준다. 시간의 창조, 시간의 측정, 시간의 묘사, 시간의 체험, 시간의 종말에 대한 통론을 요약한다.

- 시간박물관(The story of time)
- 움베르토 에코, 에른스트 고프라치, 크리스틴 리핀뫼트 외지음
- 김석희 옮김, 푸른 숲 펴냄

창조신화에서 보는 시간

〈시간의 창조〉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느님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처럼 심오한 수수께끼를 꼬치꼬치 파고 들려는 자들을 위해 하느님은 지옥을 마련하고 있었다' 모든 철학적 미스터리 중에서도 가장 오묘한 문제에 대한 성 아우구스티누스의 농담은 오늘날 빅뱅이론가들에게 기델 언덕을 제공했다. 시간은 분명 어느 한 순간에 탄생했으며 대 폭발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전과 후에 대해 말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시간이 탄생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를 묻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여러 문화가 시간에 대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견해를 알아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창조신화를 조사하는 것이다. 창조신화에서 시간이 맡고 있

는 역할을 확인하고 그런 원칙이 우주의 운행에 대한 폭넓은 인식을 어떤 식으로 뒷받침하고 있는가에 주목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유대교·기독교·이슬람교(이들 세 종교는 창세기의 첫 부분을 바탕으로 천지창조에 따른 신의 행위를 말하고 있다)에서는 시간의 직선적 성질이 우세하다. 시간은 직선적이며 하나의 방향으로 즉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 미래로 움직인다는 것이다. 사물의 쇠락이나 노화과정도 그것이다. 반면에 신을 인간세계와 따로 분리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문화에서는 시간의 순환적 성질이 우세하다. 시간이 본질적으로 순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현상은 달의 차고 이지러짐, 낮과 밤의 연속, 별들의 규칙적인 출몰, 계절의 변화 등이 그것이다.

어느 경우든 세계 자체의 존속-시간의 연속성을

포함하여-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상호이해가 신과 인간의 관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기독교에서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시간 속에서 창조했을까 아니면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공간과 시간의 모체를 먼저 창조했을까' 하는 것이었다. 수세기에 걸친 논란 끝에 1215년 제4차 공의회는 '하느님은 영적인 것과 유형적인 것,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을 모두 동시에 무에서 창조했다'는 공식교리를 확립했다. 하지만 다음 문제는 천지창조가 정확히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규정하는 일이었다. 세상 문물이 시간 속에서 창조되었다면 우주가 생겨난 특정한 시간이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인 시계는 태양

〈시간의 측정〉

인류가 시간을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선사시대부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 동기는 생존을 위한 것이었다. 그 필요성은 종교에서 비롯된 듯 하다. 인간은 수량을 헤아림으로써 비로소 신성한 존재와 가까워 질 수 있었다. 그 수단 즉 수량 자체의 구조와 그 수량이 인간의 눈으로 관찰한 현상에 적용된 방식은 신화와 지도, 계수와 계시(計時), 달력과 시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바탕을 이룬다.

태양은 우리와 가장 가까운 항성이다. 그런 만큼 태양은 지구상의 거의 모든 문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계로 이용되고 있다. 태양신을 도상화하는 방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결같았다. 대개는 남성, 영원한 젊음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바빌로니아 신화에서 태양신 샤마시는 그리스-로마의 태양신과 거의 같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베다 경전에서 마차를 타고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신 수리아의 이미지가 확립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해와 달이 남편과 아내였다. 해는 남성의 본질인 양으로서, 달은 여성의 본질인 음으로서 우주의 이중성을 상징했다. 북아메리카 대평원지대에 사는 인디언부족들에게 태양 춤

은 1년 중 가장 중요한 의례의 핵심을 이루었다.

의인화한 '시간영감'

〈시간의 묘사〉

인간은 만드는 존재다. 사물을 만들고 개념과 이미지를 만든다. 왜 만드는가. 생존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에 필요한 또 다른 도구는 경험을 개념으로 추상화하는 것이다. 시간을 개념화하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철학자·시인·신학자·과학자·예술가들은 시간의 본질을 규명하여 그 뜻을 매기려고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아왔다. 의인화된 시간의 이미지가 관례화되는 데에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 오랫동안 예술가들은 개인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결정된 방식에 따라 시간에 반응해 왔다. 시간의 이런 측면을 유럽의 예술가들이 그 동안 어떻게 표현하고 묘사해왔는지, 그 역사를 간추리려면, 시간의 창조를 묘사하고자 하는 욕망부터 서술해야 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 결과로 생겨난 설화 문학과 불명의 존재인 신(기독교와 비기독교를 이루는 두 가지 기본요소)을 묘사하고자 하는 욕망을 서술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역사를 창조하면 과거를 묘사할 방법을 찾아낼 필요가 생긴다. 덧없이 흘러가는 시간의 허무감을 자아내는 자연계의 양상들을 그림으로 재현할 수 있게 된 것은 어쩌면 명암효과에 대한 활용법을 재발견한 15세기 이후일 것이다.

시간을 사람에 견주어 묘사한 형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시간영감'일 것이다. 시간영감은 그토록 유명하기 때문에 아득한 선사시대부터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등에는 날개가 돌아있고 손에는 낫을 쥐고 있는 꼬부랑 노인의 낫익은 형상은 약 천년 동안에 걸쳐 의인화된 시간의 요소들을 조금씩 짜 맞추어 비교적 근대에 꾸며낸 것이다. 두번째로 오래된 시간의 형상은 페르시아에서 수입되어 미트라(빛과 진리)를 숭배하는 미트라야의 일부가 되었다. 아이온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영원의 원리를 상징했고 영원 속에서

는 시간 자체가 세상의 모든 창조력의 원천이었다.

인체의 생물학적 리듬

〈시간의 체험〉

인간은 그 동안 시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좀더 나은 시간 측정수단을 개발하기 위해 오랜 세월을 바쳐왔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다른 유형의 시계에 의해 여러 방식으로 지배받고 있다. 인체는 유기체의 리듬을 조절하는 시계의 지배를 받는다. 태아가 맨 처음 듣는 소리는 엄마의 심장박동이다. 정상적인 어른의 심장은 1분에 75번씩 뛰다. 여성의 생리주기는 평균 29.5일로 이것은 삭망월과 정확히 일치한다. 인간의 수면은 24.8시간 주기에 따른다. 이 기간을 생물학적 주기의 리듬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대략 24시간 주기로 반복되는 생물학적 리듬이라는 뜻이다. 지금까지 인체에서는 1천가지가 넘는 생물학적 리듬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세포분열은 늦은 저녁에 가장 활발하며 아드레날린 분비량은 오전 4시경에 가장 적고 잠에서 깨어날 때 최고조에 이른다. 신장은 한 낮에 가장 효율적으로 기능한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또 다른 종류의 시계는 노화다. 인간은 개개인의 DNA와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따라 제각기 다른 방식과 속도로 노화한다. 그러나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일방통행의 궤도 위에 놓인다. 나이와 관련된 의식은 모든 문화에 존재한다. 하지만 탄생·명명·세례·입학·성년·취직·결혼·회갑·죽음 등과 관련한 통과의례는 민족과 종교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라 다양하다. 인구 통계도 노화등급에서 각자가 차지하는 위치에 영향을 준다. 평균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아동기는 길어지고 정서적 성숙은 늦어지고 이른바 중년기는 25세에서 40세로 올라갔다.

죽으면 '시계'는 멈추지만...

〈시간의 종말〉

시간의 종말에 대해 지구상의 여러 문화들은 어

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미래에 대한 종말론적 전망은 직선적 시간관을 갖고 있는 문화에는 거의 다 존재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간의 종말을 모든 것의 종말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신앙 체계가 아무리 엄격하고 결정론적이라 해도 소수의 의인들은 신의 선택을 받아 구원받을 것이며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은 시간이 끝난 뒤에도 살아 남아 신의 영광 안에서 영생을 누릴 것이라는 확신은 모든 문화에 공통적인 믿음인 것 같다. 시간이 끝난 뒤에도 무언가는 살아 남을 거라고 믿는 이 경향은 인간의 기본적인 특성처럼 보인다. 존재의 모든 측면이 사라져 없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실제로 지구상에 존재했던 주요 문화와 종교 가운데 다음에 종말이 오면 모든 게 끝난다고 믿은 것은 직선적 종말론과 순환적 종말론을 둘 다 가졌던 마야족과 아즈텍족 뿐이었던 같다.

순환적 시간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시간의 종말은 훨씬 단순하다. 힌두교에서는 해와 달, 날씨를 관장하는 신과 여신들처럼 시간과 관련된 신들을 비교적 하찮은 신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영겁이 한번 끝날 때마다 우주와 함께 죽고 위대한 신들이 세상을 다시 만들면 이들도 다시 태어난다. 한 세상의 종말은 다음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기 때문에 축하해야 할 일이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개별적인 시간의 종말을 경험한다. 태어나면 인간의 시계는 돌아가기 시작하고 죽으면 그 시계는 멈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정말로 죽지는 않을 거라는 믿음을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 이런 믿음은 술한 형태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 죽음은 다른 세상으로 가는 여행일 뿐이다, 사람은 지식을 통해 계속 살아 남는다, 예술가는 작품을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등등... ⑤7

李龍水 <한림대 객원교수/파학독서아카데미 회장>